

K-GX 추진단 출범식

2026.1.28.(수) 16:30~18: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B2)

인사말씀

2026. 1. 28.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오늘 민관합동 K-GX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을 비롯한
각 경제단체, 산업협회 참석자분들과
기후부 장관님, 과기부 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탄소무역 장벽이 확대되면서,
녹색전환(GX)은 이제 비용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미래 생존을 위해
우리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녹색전환(GX)을 핵심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日) '24~'34년간 약 1,418조원 투자 추진, (EU) '35년까지 약 584조원 투자 추진 등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선제적 녹색전환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력·기술 역량에
GX 경쟁력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잠재성장을 반등과
경제 大도약의 강력한 원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에서
「K-GX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녹색전환이 '우리에게 부담 또는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기회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이 되는 GX”가 되어야 합니다.

탈탄소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大-중견-기후테크 기업'의 GX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Team Korea'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둘째,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 또는
기업이 없도록 “모두의 GX”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전환을 촉진·지원하고
대기업 협력,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환대상 기업과 인력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특히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발전의 핵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GX를 지원” 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 세제 인센티브와 녹색·전환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시장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GX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산업의 녹색 대전환은
정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정책과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추진단을 통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이 지혜를 모은 「K-GX 전략」이
우리 경제·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미래 산업질서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